



6·25 미망인의 아픔 제56주기 현충일인 6월 6·25 당시 전물군경의 위패가 모셔진 광주 남구 사직동 위패 봉안소에서 한 미망인이 남편의 위패를 어루만지고 있다. 이곳에는 광주지역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4406명의 위패가 봉안돼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위기의 광주 LED산업

빚 대기업 저가 공세

10년 지퍼온 불씨에 삼성·LG 태풍

1만원대 제품 출하·인력 빼가기... 지역 중소기업 고사 경쟁 부추기고 보급 뒷짐 진 정부도 위기 부채질

삼성LED 등 대기업들이 최근 1만원대 LED(발광다이오드)조명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 발 더 나아가 LG전자는 경쟁까지 내걸고 1만원대 LED조명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아직 LED조명시장이 개화도 하기 전, 시장 선점을 위한 업체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업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LED조명의 가격 인하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론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가격인하 경쟁으로 중소기업이 몰락할 것이라는 부정론이다. 여기에 정부는 최근 'LED산업 제2도약 전략'을 발표, 전국 5개 권역을 LED 네트워크로 묶어 지역간 경쟁체제 도입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광주시가 전략산업이자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왔던 광주 LED산업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무한경쟁에 내몰리면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우 '문 닫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130여개에 달하는 광주 LED업체가 2~3년 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광주 LED산업 5년새 7배 성장=광주지역 LED산업은 지난해 말 현재 총 131개 업체가 1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 2006년 60개 업체 1928억원과 비교하면 업체 수는 2.2배, 매출액은 6.7배 성장했다. 광주 광산업 전체 매출액 2조5400억원의 절반 이상을 LED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인원도 지난 2006년 932명에서 지난해 265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광주지역 LED업체 대부분이 조명과 응용분야에 몰려 있다. 전체 131개 LED업체 중 조명·응용분야는 각각 82개와 25개로 81.7%에 달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업체가 원천기술 없이 단순 조립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정부의 LED경쟁 정책은 광주 LED산업의 위기로 다가온다.

◇LED조명 1만원대 경쟁 접화=LED조명시장은 아직 개화도 하기 전에 업체 난립과 저가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삼성과 LG뿐만 아니라 SK·롯데·동부·포스코·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LED조명시장에 뛰어들었다. 특히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LED조명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이들 대기업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LED조명을 대량생산, 1만원대 보급형을 출시하거나 예고하고 있다. 기존에 3만~5만원 하던 LED조명을 1만원대로 낮춰 가정에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도 심각하다. 대기업들이 앞다퉈 LED조명 사업을 강화하면서 인력 수요가 커지자 손쉽게 중소기업에서 경력사원을 흡수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기술·생산 인력 뿐만 아니라 영업인력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경쟁만 부추기고 보급은 뒷짐=공공기관의 LED조명 보급사업은 더디지만 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LED 보급을 공언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쏟아지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급사업은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

심상인 LED마니클러스터 회장은 "시장이 큰 민간의 경우 대기업의 역할이 불가피하지만, 공공시장은 기술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이 맡아야 한다"며 "공공시장 보급사업이 지연되고 대기업 공세가 가속화하면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쌀 제값받기 나섰다

도, 가격 경쟁력 강화 '농협·민간 협의체' 운영 합의

전남도가 높은 품질에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남쌀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농협 RPC 전남협의회, (사)RPC 전남협의회, 대한곡물협회 전남지회 등과 공동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전남 쌀 제값 받기'를 위한 농협·민간 통합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가 6일 밝혔다.

전남 쌀값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벼 품종 1~2개를 주력 품종으로 선정해 재배 면적을 확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등으로의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쌀 유통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3일 통합협의체를 출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통합협의체가 출범하면 농협 등이 주축이 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전남 쌀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브랜드 통합과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전남 쌀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확 후 품질 향상을 위한 저온 창고 등 RPC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가공시설 현대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나 미끼상품을 쌀에 납품하도록 요구하는 사납함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고 저가미 납품을 요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 서한문도 발송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쌀이 제값을 받으려면 각 기관·단체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체 구성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는 농협·민간 RPC의 경영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불량 범씨' 피해신고 봇물

정부 보급종 '온누리' '동진 2호'도 발아 불균형

종자원 '중자 선진화 추진단' 구성 개선책 착수

전남도가 '불량' 범씨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실제 파악에 나서면서 다양한 정부 보급 종자에 대한 농민 피해 실태가 접수되고 있다.

국립종자원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호풍벼 뿐만 아니라, 온누리, 동진 2호 등의 품종에서도 농민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 국립종자원도 정부 보급 종자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감이 커짐에 따라 '정부 보급종 선진화추진단'을 구성,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군이 정부가 보급한 벼 종자의 발아 지연 및 불균일 현상 등 농가별 피해 상황을 중간 집계한 결과, 중만생종인 호풍벼 뿐만 아니라 '온누리'와 '동진 2호' 품종에서도 발아불균형 현상이 발생했다.

강진군은 '동진 2호'의 경우 농가에 보급된 6t(20kg 300포) 가운데 1.

48t(74포대)이 발아 불량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온누리' 품종에서는 84t(20kg 4200포대)중 7.38t(369포대)가량이 발아 지연 및 불균일 현상, 뿌리 썩는 현상 등으로 적기 모내기에 차질이 빚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강진군은 또 '운광'과 '황금누리' 품종에서도 일부 피해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비가 많아 기후의 영향을 받은 수 있고, 발아력이 떨어지는 것

은 범씨 종자소독의 문제로 의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일선 사·군의 농가별 피해 실태 정밀 조사가 끝나는 15일이면 훨씬 더 많은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원인 분석과 별개로 지난날 말 분야별 전문가 17명으로 이뤄진 '보급종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30일까지 보급 종자의 발아 지연과 관련, 소독방법 개선 및 종자 사후관리 강화방안, 종자 품질 검사 방안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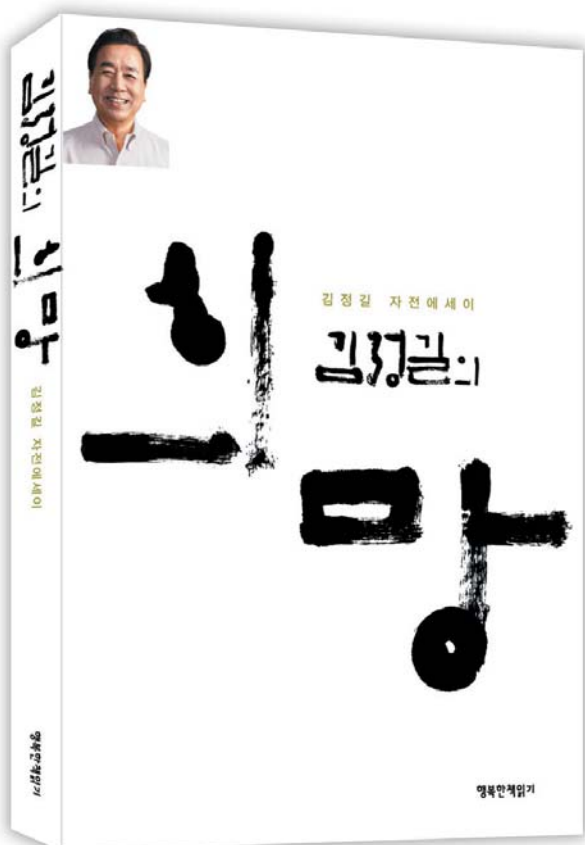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4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김정길, 희망을 말하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저는 국민들의 위대한 힘을 믿습니다"



김정길 저음 / 352쪽 / 신국판 / 14,000원

우리에게는 또 한 사람의 노무현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평생의 동지이자 친구였던 김정길 전 장관입니다. 3당 합당을 거부하고 평생을 지역주의와 싸워온 소신, 당과 동지들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해온 헌신이 그렇습니다. 지역주의 극복에 정치 인생 전부를 걸었던 김정길 전 장관의 유포문은 정치적 소신이 귀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문재인(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제는 정말로 하나가 되라는 국민의 명령에 귀 기울일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오랜 지역주의가 남긴 상처 위에 사회양극화는 점점 심화됩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들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통합의 리더십, 경청하고 대화하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언제나 대화의 사람, 화합의 사람, 그러나 원칙 앞에 타협 없는 사람. 그 사람 김정길이가 백만송이 민란 가운데 한 송이 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문성근(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대표)

책을 펴든 순간 들어온 한 줄의 문구, "부자에게 명예를, 빈자에게 존엄을." 한참 들어다봅니다. 가난한 자의 존엄을 지켜주면 부자에게 명예가 생긴다는 설명을 다시 들어다봅니다. 화해와 공존, 연대, 분배, 복지... 이 모든 말들을 모아담은 이 한 줄의 문구. 이 꿈을 함께 꾸어봅니다. '김정길의 희망'이란 제목이 크게 울리는 이유입니다.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출판기념회

- 일시 2011년 6월 12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관